“자기 주처에다 모든 것 맡기면 사는 데 걱정없어요”

안양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 인터뷰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상황들을 그때그때 오는 대로 용도에 따라 내 근본자리에 입력하라. 거기 외에는 해결할 곳이 없으니 그냥 딱 맡겨놓고 지켜보라. 그것이 관하는 것이다.”(대행 스님 법어 中)

생활 속 참선수행을 강조하는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이 11월 12~13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2011 한마음음악제’를 개최한다.

한마음선원은 이같은 문화예술 사업을 통해 선원장 대행 스님의 가르침인, 마음의 근본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주의 진리에 순응하는 것이며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것들 속에 그같은 진리가 있음을 전하고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근본을 알고 그 마음의 길을 함께 깨쳐감으로써 지구가 지켜지고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으며 그러한 공생의 길을 더불어 가고자 하는 것이 한마음선원에서 합창제를 개최하는 뜻이다.

행사에는 국내 · 외 20여 지원의 스님 100명, 국외 지원신도 120명, 어린이 120명, 청년 150명, 거사 · 보살 750명 등 1300명의 대규모 인원이 무대에 오른다.

행사를 앞두고 10월 23일 안양 본원에 주석하는 주지 혜원 스님을 만났다. 혜원 스님은 “무엇이든지 마음을 내서 정성스럽게 임하면 세계가 밝아지고 지구도 밝아진다. 모든 경계를 주인공 자리를 믿고 그곳에 맡기고 놓고 가라”고 시종일관 강조했다. 다음은 주지 스님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정리=이나은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 한마음음악제가 갖는 의미는?

은사스님이신 대행 스님께서는 합창제든 부처님오신날 행사든 무슨 행사를 하든지 간에 행사를 위한 행사는 하지 않습니다. 깊은 마음의 뜻을 담으시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참여를 통해 스스로 그 뜻을 알게 하는 방편으로써 행사를 치르게 하시죠.

요새 전 세계 · 지구적으로 세상이 흉흉하고 그렇잖아요? 이번 한마음음악제는 일체 우주 안의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앙청(仰請)하는 겁니다. 다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말이죠. 그렇게 하면 합창제를 보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 다 이익이 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일체합창제라고 이름하셨으니 그 뜻이 엄청 깊은 거죠.

– 한마음을 강조하시는데 한마음이란 무엇인지?

우주를 생성시킨 근본 에너지인 불성자리를 한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상대와 내가 따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가 다 같이 공존하는 것을 한마음이라고 합니다. 일체 모든 사람들이 본래로 다 한마음입니다. 벌레라든가 짐승이라든가 얘네들도 다 생명이 있으니 살잖아요? 그러니 풀뿌리 생명까지도 전부다 한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얘네도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다 들어요. 뱃속의 태아도 다 듣거든요? 그러니까 다 한마음이죠. 그 한마음이라는 것이 크고도 크지만 크다고 말 붙일 자리도 없을 만큼 꽉 찬 자리에요.

– 대행 스님이 이번 음악제를 위해 내린 법어 “잘해서 하늘로 뜨라! 전체에 빠지지 말고 해라! 꾀부리지 말라!”는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것인지? 주지 스님의 견해는?

무엇이든지 정성을 들여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다못해 대행 스님은 “부처님오신날 장엄등을 만들어 연등 축제에 나갈 때도 이 등을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좋아질 것이다. 나라도, 세계도 좋아지고 사람마다 그 등을 보면 환희심을 갖고 마음의 불을 켜게 되니 좋을 것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내서 모든 일에 정성을 들여 일에 임하라는 것이죠.

– 한마음선원 신도들은 모든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 같다. 이러한 활동이 신도들에게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

그렇게 한 번씩 행사를 치르고 나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익이 있어요.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에서 거사님들이 큰 연등 장엄물 수레를 끌고 나가잖아요? 그 행사에 한 번씩 참여하고 나면 집안일이든 사업이든 그 해 모든 일들이 다 잘된대요. 일이 잘 풀리니까 다음 해에도 또 하겠다고 너도 나도 시켜달라고 하는 정도예요. 제가 가만히 몇 십년 동안 쭉 지켜보고 있는데 신도님들이 선원 행사에 무엇이든지 참여하고 나면 그분들 가정일이 잘 풀리더라구요. 다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믿고 생활 속에서 공부를 해 나가고 모든 일에 정성들여 임하니까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공부를 이익이 없는데 왜 하겠어요? 다 내가 좋자고 다니는 것인데 말이죠.

– 종교 활동을 통해 고통을 없앤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네요.

한 며느리가 고부간 갈등이 심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에게 “보살님.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시겠어요? 보살님 부처님 앞에 가서 절을 공손히 하면서 소원 빌죠? 시어머니한테 가서 최선을 다하세요. 진실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된장찌개 하나라도 정성껏 끓여 드려보세요. 한 일주일만 그렇게 해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변화가 왔어요. 그 보살이 일주일 뒤에 왔길래 “보살님 어떠세요?”하고 물었습니다. 보살은 “스님 말씀대로 했더니 진짜 시어머니가 달라졌어요. 저더러 ‘얘야, 네가 다니는 절이 어디니. 나도 같이 다니자’고 하셨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죠? 시어머니를 밉게만 생각하지마세요. 진실로 모시면 어머니가 따라오십니다”했더니, 그 며느리가 “맞아요. 요새는 너무 좋아요”하더군요.

요새 이혼하기 직전인 부부들 많죠?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살님, 보살이 좀 꺾여요. 여긴 한국이에요. 공부 많이 했다고 너무 외국여인처럼 살지마세요. 콩나물국이든 된장찌개든 진심으로 정성스럽게 잘 대접하고 ‘이 공양을 드시고 이이가 부처님 심부름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못해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요. 그 뒤 두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돼서 다정해지더군요.

그만큼 마음공부를 진실하게 하면 사람들이 서로 잘 살고 행복해집니다. 서로 진실하게 말해주고 해야 여기(마음)서 발현이 돼요. 건성으로 믿으면 안돼요.

–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이란?

세상 만물이 원래 그렇게(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으로) 다 잘 돌아가고 있어요. 모두들 모르셔서 그렇지. 생활참선을 하면서 그 속에서 터득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뛴다’고 가르쳐요. 자나 깨나 참선, 앉으나 서나 참선을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내 스스로가 하나하나 다 터득해서 간다니까요.

어떠한 경계가 생기든지 간에 꾸준히 안으로 밀어넣고 맡기세요. ‘나라는 건 없다. 나는 그냥 시봉자로서 따라 움직여 갈 뿐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이 몸뚱이 혼자서 살 수 있습니까? 그 속에 알맹이가 있으니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항상 ‘알맹이에 의해서 나는 산다. 나 아닌 참나가 있어서 산다’고 하시면서 공부하세요.

제가 된다고 하면 된다고 믿으세요. 알아서 저절로 될 건데도 ‘될까, 안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한번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선원에 처음 찾아왔어요. 그분들에게 “안돼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된다고 자신 있게 안으로 관하세요. ‘주인공이 있는데 왜 안돼? 당연히 되지’ 하고 자신있게 안으로 꽂고 관해보세요” 이랬습니다. 이후 그분들 어떻게 됐냐구요? 일이 잘 풀려서 요새는 바빠서 선원에 잘 오지를 않습니다(웃음).

그러니까 자기가 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거예요. 잘 될 일인데도 ‘되긴 뭐가 돼’ 이렇게 하면 안돼요. 몸이 아파도 ‘주인공 이 시자(侍者) 잘 고쳐서 네가 이끌어. 응? 고쳐서 건강하게 이끌어야지 심부름을 열심히 하지’하고 한 생각내고 가다보면 때가 되어 은연중에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저는 이러한 경험을 수도 없이 해왔기 때문에 사는 게 걱정이 없습니다.

되나, 안되나를 지켜보지 말고 탁 놔버리고 잊어버리세요. 그래야 잘 돌아갑니다. 우리 몸속에 피가 알아서 잘 돌아가는데 혈관 한 부분을 잡으면 피가 돌아갑니까? 멈추잖아요? 맡겼으면 놔버리세요 그냥. 마음공부를 하면 쉽게 살 수 있어요.

– 말처럼 믿고 놓는게 잘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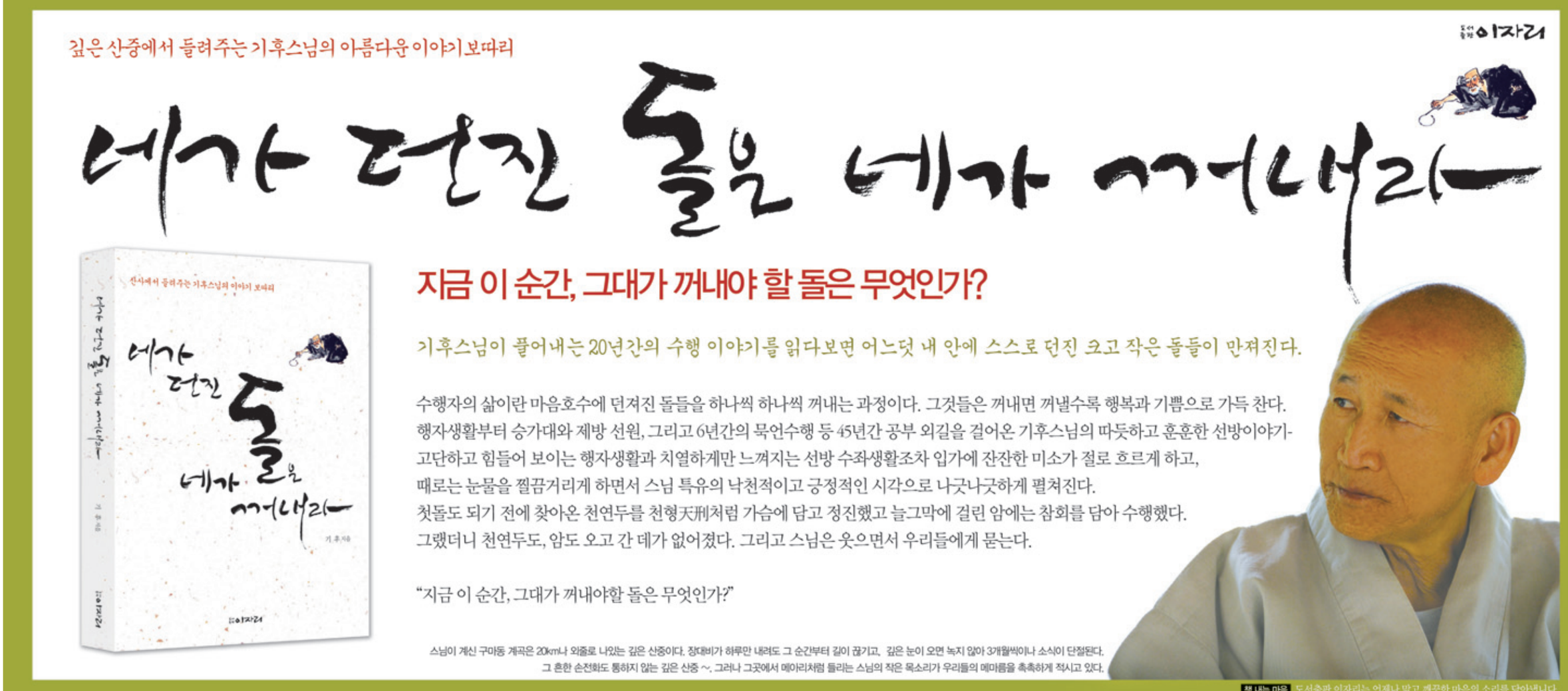
죽든 살든 내버려둬요. ‘주인공, 네가 이 시봉자가 필요하다면 나를 잘 끌고(살리고)가고, 필요치 않다면 당장 가게(죽이고) 해. 나는 죽는 거 무섭지 않아’ 이렇게 하고 그냥 두세요. 그렇게 하면 저절로 앞으로 잘 가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좌골신경이 좋지 않아서 다리를 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자기 전에 ‘주인공! 공부한다는 내가 신도님들 보는 앞에서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면 되겠느냐? 이건 부처님 누를 끼치는 일이야!’ 하고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벌떡 일어나지잖아요?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죠.

또 한 번은 제가 가슴에 멍울이 생겼었어요. 얼마나 아프던지. 그때 당시에는 병원 갈 생각도 안하고 ‘주인공, 나를 공부시키려고 이런 병이 나한테 왔구나. 알았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픈지 체험해보라고 이런 아픔을 주는 거구나. 알았으니 당신이 고쳐서 끌고 가.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으니 건강한 몸으로 심부름할 수 있게 해야잖아.’하고 관했어요. 그렇게 주인공한테 맡기고 나니 멍울이 조금씩 없어지다 나중에는 싹 없어졌어요. 은사 스님께 이런 일들을 말씀드리면 스님은 “그게 병이냐? 네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지.”라고 말씀하십니다.

– 음악제 이후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때 한 생각이 나면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해서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남들처럼 1년 계획, 뭐 할 계획 이런 것을 세우지 않습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합니다.

– 스님의 일과를 소개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너무 바쁩니다. 신도들 상담서부터 한마음선원 국내 · 외 20여 개 지원의 일들을 다 보고 받고 신경 써야 하거든요. 스님과 신도님들은 좀 많아요? 신도님들한테 신경써야지, 100명이 넘는 스님들도 신경써야지 한집에서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떨 때는 머리에서 쥐가 나려고 해요. 너무 듣는 게 많으니까(웃음). 그래도 우리는 조용히 얌전하게 돌아가게끔 하고 있습니다.